



제2의 앵그리버드 키우는 핀란드·스웨덴

【스웨덴 스톡홀름·핀란드 헬싱키 박기호 기자】 ‘지퍼·베어링·성냥·명키스패너·다이내마이트...’ 스웨덴이 창출한 발명품들이다. 인구 960만명의 스웨덴이 1인당 5만5000달러를 넘는 국민소득을 올리는 배경에는 창조경제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에도 적극 나섰다. 중소기업 지원에 5개 정부부처와 19개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교육시켜 IP어드바이저로 육성하고 있다. 핀란드는 모바일업계의 거물인 노키아가 쓰러져 가고 있지만 새로운 활력이 싹트고 있다. 젊은이들의 창업 열기와 ‘하나의 큰 노키아 대신에 100개의 새로운 작은 노키아’를 만들겠다는 핀란드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창업 바람이 거세다. 북유럽의 강소국 스웨덴과 핀란드의 창조경제 현장을 둘러봤다.



핀란드 알토대의 ‘스타트업 사우나’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둘러서로 사업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창업 파트너를 찾으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기호 기자>

“공룡 노키아 대신 100개 強小벤처를” 창업열풍 부는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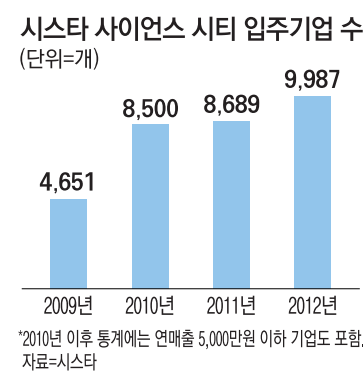
지난 18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도심인 부오리카투 거리에 위치한 한 사무실. ‘헬싱키 싱크 컴퍼니(Helsinki Think Company)’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이곳은 헬싱키대학이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문을 연 ‘만남의 장소’다. 안으로 들어가니 ‘네트워킹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함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기업가들의 만남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회는 즉석에서 열사담과 하이파이브 하기, 3명씩 서로 겨냥기, 서로 이름 불러주기 등으로 서먹함을 없애려 했다. 이곳에서 만난 야르코 쿠로네 씨(34)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 함께 창업을 상의하려고 왔다”면서 “지금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헬싱키대 창업학과 석사과정의 케티아 메리나이엔 씨(25·여)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5년 전에는 창업을 하려는 학생이 10명 가운데 0.1명뿐이었다면 지금은 2-3명은 될 것”이라고 했다. 핀란드 창업의 메카인 알토대학 내 ‘스타트업 사우나’도 이와 비슷하게 창업 희망자와 기업가들의 만남의 장이 열렸다. 스타트업 사우나에서 행정업무 지원하는 나탈리 고데 메니저는 “이곳은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며 “알토대 학생이 창업을 주제로 개설한 ‘페이스북’에는 5년 전 가입자가 2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8000명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핀란드에 벤처기업 창업 열기가 뜨겁다. 보수적인 성향의 핀란드인들은 5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은

스웨덴, 창업보조금 年3700억원 지원
실패확률 높은 고위험·초기R&D 투자

노키아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노키아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더 이상 대기업 취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벤처 창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었다. 핀란드 정부도 최근 ‘하나의 큰 노키아 대신 100개의 작은 노키아를 만들겠다’며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핀란드는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를 내놓은 로비오에 이어 창립 ‘하나는 큰 노키아 대신 100개의 작은 노키아를 만들겠다’며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스톡홀름대와 스웨덴 왕립공과대 캠퍼스도 이곳으로 옮겨 기업들과 연구개발(R&D) 협력에 나서고 있다. 단지 중심부의 32층짜리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 옆에 있는 쇼플링 ‘시스타 갤러리’에 들어서면 상점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011년 3만2469개로 증가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북서쪽으로 20km 거리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단지인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자리 잡고 있다. 1975년 이동통신업체인 에릭슨이 동지를 뿔뿔이 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보통신업체 1168개를 비롯해 모두 9987개사가 입주해 있다. 스톡홀름대와 스웨덴 왕립공과대 캠퍼스도 이곳으로 옮겨 기업들과 연구개발(R&D) 협력에 나서고 있다. 단지 중심부의 32층짜리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 옆에 있는 쇼플링 ‘시스타 갤러리’에 들어서면 상점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지어 있다. 평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산업단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도심이라는 느낌이 들게 한다. 산업단지이지만 단순히 연구개발(R&D)이나 제조만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쇼플링과 주커 등 도시의 일상생활이 모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곳의 명칭도 공업단지라는 의미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에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로 바꿨다. 공장들만 밀집돼 있고 걸거리는 텅 빈 국내의 산업단

지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오키 린드스트롬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디렉터는 “거리나 시간상으로 가깝도록 도시를 설계하고 건물을 밀집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우연한 발견과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스톡홀름시, 대학, 에릭슨·IBM 등 기업과 도시개발 업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통 비전을 만든다. 이같이 자발적인 협력(클래버레이션)은 스웨덴 혁신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다. 헨리크 프리덴 스웨덴 기술혁신 투자청(VINNOVA) 프로그램 매니저는 “대학과 기업 간 연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산학 간 협력을 도와주는 것이 스웨덴의 정책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혁신은 금융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창조

적이고 도전적인 일에 나서는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한다. 레나 니버그 기술혁신투자청 매니저는 “고위험 분야, 초기 단계 연구개발, 도전적 혁신 분야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패를 전제로 하고 투자한다”면서 “특히 실패한 기업도 다시 기술혁신 투자청에서 투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기준 기술혁신투자청의 투자금액은 22억크로나(약 3740억원)에 달하며 이 자금은 용자가 아니라 보조금(Grant) 형식으로 기업에 제공했다. 스웨덴의 대표적 법률회사인 그로트앤드컴퍼니의 정영미 변호사는 “스웨덴에서 혁신이란 실패를 무릅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실험해보는 과정”이라며 “또 창조성은 서두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발명진흥회 스톡홀름 지식재산권포럼



지난 1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지식재산권포럼에서 순성한 주스웨덴 대사(앞줄 왼쪽부터), 법률회사 그로트앤드컴퍼니의 콘나 슐트코비스트 CEO, 토마스 레브 대표변리사 등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중세에 2천만원 지원... 스웨덴, IP 등록까지 챙겨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은 기업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 1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나라의 대표적 법률회사인 그로트앤드컴퍼니와 한국발명진흥회,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지식재산권 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 토마스 레브 그로트앤드컴퍼니 대표변리사는 “유럽 단일특허제도(UP)는 대기업에는 기회가 되

공무원 6천명 지식재산권 어드바이저로

겠지만 중소기업에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행사는 주(駐)스웨덴 한국대사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후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UP가 도입되면 하나의 출원 및 신청으로 UP 회원국 전체에 유효한 하나의 특허권이 발생한다. UP 시행을 앞두고 중입원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95%가량 차지하는 스웨덴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IP 보호 지원에 나섰다. 스웨덴 정부는 중소기업 IP 지원을 위해 일종의 쿠폰이라 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 제를 운영하고 있다. 1개의 중소기업에 한 장의 바우처(1000만~2000만원)를 주면 기업은 이를 IP 컨설팅을 받는 데 사용하거나 특허를 등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 정부는 5개 중앙 부처(기술혁신투자청·에너지청·회사등록청·통계청·개발청)와 19개 지방 정부에서 창업 보육 및 혁신 지원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교육해 중소기업의 IP 관리에 조언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실리아 프로더버그 PRV 프로젝트 매니저는 “6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어드바이저들이 중소기업에 IP와 관련한 조언과 자금지원을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국가 스웨덴은 이제 IP와

IP금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단계다. 반면 국내에서는 산업은행이 IP 투자펀드에 10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IP를 담보로 대출 지원까지 나서고 있다. IP펀드와 IP담보대출은 IP라는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금을 마련하는 통로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허 등 IP를 펀드에 매각하지만 IP는 그대로 사용하는 ‘세일&라이스 배’ 방식의 투자는 기술기업들의 새로운 라이선싱 방법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영기 산업은행 기술금융부 팀장은 “IP금융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ww.samjunggedu.com
www.facebook.com/samjunggedu

제주영어교육도시

바로 내일 오픈!

OPEN 기념 선착순 고급사은품 증정

59㎡ 74㎡ 84㎡ 총 701세대 대단지

대자연 속 대단지가 선사하는 가슴 벅찬 감동!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20여개소의 공원과 아름다운 조경시설로 단지 곳곳을 가득 채운 삼성 G-edu만의 자연친화성을 만나보세요.

LANDMARK

놀라운 규모의 다양한 고품격 커뮤니티와 입주주민만을 위한 One-stop living 라이프!

분양문의: 064) 794-1111

서울홍보관: 02) 2052-1011